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2월 24일(금)  
(윤력 2월 5일)  
Пятница  
24 февраля 2023г.  
№ 7 (1202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23일은 러시아에서 조국 수호자의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3월 2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신청 접수 시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3.3.2.(목)부터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 출장소(러시아 및 CIS 일부 지역 재외공관)를 통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출장소 측이 전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출장소는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27일에 가질 예정이다.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절차에 대한 안내문은 본지 이번 호의 3, 4면에 소개된다.

### 사할린 한국교육원 제10대 원장에 정승훈 전 교장 부임

정승훈 사할린 한국교육원 신입 원장이 2023년 3월 1일부터 부임한다. 정승훈 신입 원장(1967년생)은 1994년 영어 교사로 교직을 시작하여,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



고, 한국교육대학교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연구사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이번에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 <우리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사할린 축제 전국 생방송

2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전국 애국 음악 축제가 사할린에서 개최된다.

대규모 행사 진행의 아이디어가 돈바스를 방문했던 사할린의 예술단체에서 나온 가운데 연방 차원에서 지원을 받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축제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공연은 러시아 전역을 비롯한 해방된 지역에서도 온라인과 티비(TV)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갈라 콘서트에는 유명하고, 갈수록 스타 명성을 얻고 있는 러시아 보컬들이 출연하는데 그중 율리야 치체리나, 올라 코르무히나, 장고, '세르가' 그룹, '바-반크'그룹, '7B(베)'그룹과 다른 예술인들, 예술인들이 출연한다.

##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 기념일은 조국의 역사,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국군의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민병대, 보로지노 전투의 영웅들, 가장 끔찍한 전쟁에서 파시즘과 맞선 소비에트의 장병들, 그들 모두가 우리를 위해 러시아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분기충전하는 용기는 여전히 자손들의 핏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의 부름을 따라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국민과 국경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청년들은 책이나 영화가 아닌 아버지와 형제들의 모범 속에서 필요하다면 자기 자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용기와 애국심을 배웁니다.

특별군사작전은 사할린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커다란 가족임을 입증해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국을 수호하고, 다른 이들은 말과 행동으로 장병들을 지지함으로써 굳건한 후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결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됩니다.

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대조국전쟁의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조국의 서부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러시아의 장병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사할린 주민 여러분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조국 수호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 푸틴 대통령, "서방과 우크라이나, 도발의 장본인. 뉴스타트 조약 참여 중단"

21일(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국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국가안보 확립과 역사적 정의 회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 전하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과의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조약은 2010년 러시아와 미국이 체결한 것으로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두 숫자를 제한하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는 패배하지 않았으며 안보와 발전을 보장할 모든 재정적 자원을 갖고 있다."며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건했고 러시아는 다른 국가와 새로운 결제시스템 및 재정구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을 지원하는 게 우리 책임"이라며 "특별 국가기금이 참전 용사와 전사자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의료> 지역 간 포럼, 사할린에서 진행

2월 24일(금) -26일(일)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보건 분야의 의료 전문가 300명이 <모두 이용하기 쉬운 의료> 포럼에서 토론한다. 전문가들은 연방 기관과 국내 우수 의료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됐다고 사할린주 정부가 전했다.

포럼 첫날에는 사할린주의 외래진료소를 중심으로 최적의 보건 모형 구성에 있어 사할린주의 경험을 소개한다. 포럼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새로운 의료적 실재를 알 수 있는 5개 행사장을 마련했다.

포럼에는 러시아 연방 보건부 미하일 무라슈코 장관이 귀빈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보건부 장관은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와, 러시아 연방 의회 연맹위원회 부의장이자 '통합 러시아'당

총회 사무총장인 안드레이 투르차크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막한다.

"포럼의 범주에서 우리의 과제는 지역 의학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발견하고 연구할 준비가 돼 있다.

오늘날 사할린에서 우리는 숙련된 전문가들과 청년 전문가들이 의학의 선봉자로서 스스로를 느끼며 일하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사할린주 정부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총재가 강조했다.

전체회의에서 포럼 참석자들은 정보자료 관리를 통한 보건체계의 변화와 개발 분야의 핵심적 요소들에 대해 논의했다.

## 새고려신문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2023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일시: 2023.2.27(월) 16:00  
장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1층 대강당 (Мира 83-А)  
내용: 2023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및 신청서류 관련 안내

# 사할린을 좋아하는 사람: 포로나이스크 우유공장 김정호 대표

〈포로나이스크 우유공장〉주식회사 김정호(러어명 미하일 이와노위츠) 대표이사를 오래 전부터 취재하려고 했다. 그가 운영하는 포로나이스크 우유공장이 출시하는 제품들은 품질이 좋아 사할린에서 인기가 많다. 이 공장을 한인동포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자부심도 가지게 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포로나이스크까지 거리가 거의 300 킬로미터, 차로도 서너 시간 걸려 취재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김 대표이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와 있는 기회를 타 신문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1955년생인 김정호 씨는 사할린 동포 2세대. 아버지가 가라후토로 강제징용되었고 전쟁 이후 사할린 출신인 어머니와 결혼했다. 김정호 씨는 5 형제 중 둘째다.

마카로브 구역 노워에 마을에서 태어났고 대학 시절과 군대 복무 기간을 빼고는 6세부터 현재까지 쭉 포로나이스크에서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는 곳을 몹시 좋아하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는 1975년에 입학한 노위시비르스크 전기기술통신대학 기술경제학과에서 공부를 했다. 무국적자였는데 대학 3학년 재학 중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반 군대에서 복무하였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난방관리 기관에서 한 5년 근무하다가 통신 관련 기관에서 일했다. 경제가 혼란스러운 1990년대에는 일을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식품 파는 매점을 몇 개를 열었다. 이 매점들이 현재도 잘 운

영되고 있다.

친구와 함께 우유 공장의 주주 중 하나가 되어 해마다 투자를 해왔다. 9년 전에 몸이 약해진 대표이사가 공장을 그만두고 주요 주주들이 김정호 씨에게 이 자리를 부탁했다. 그 당시 회사는 죽어가고 있었다. 20여 년이 된 공장의 시설들, 장비들이 많이 낡아 있었고, 좋은 경영이 필요했다. 김정호씨는 전문적으로 엔지니어 자격이 있고, 경제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영에 실질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장을 일으켜세워야 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이 도전에 매진하여 김 대표가 성공을 이뤄냈다. 공장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라인, 새 장비를 구입하여 가동시키고, 우유 가공 수량도 많이 높였고, 제품(트워로그, 우유, 우유음료, 스메타나(생크림 비스킷) 등)도 다양하게 출시하며 제품 포장에 신경을 썼다. 현재 공장에는 100명이 일하고 있다.

공장의 제품은 남부에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사할린 북부의 오하,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까지 전 사할린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장은 천연성분만 사용하니 소비자들 가운데 신뢰를 받는 업체로 떠오르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우유는 포로나이스크 및 이웃 지역(스미르니흐, 마카로브 등) 스톱호즈(집단 농장) 및 개인 작은 낙농장에서도 구매하여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 현재는 사할린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농업 업체인 '그린 아그로'에게서도 우유를 구입하고 가공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가 가장 많은 제품은 우유다.

4년 전부터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다. 포로나이스크 공장은 사할린주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다. 천연성분으로 만들고, 신선하고, 맛있어 출시했을 때 즉시 인기도가 높아져 수요에 따른 생산량이 부족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아이스크림 종류도 다양해졌다. 얼마 전에 새 종류를 출시했다고 김 대표가 말하였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한 사이트에서 포로나이스크 공장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발견했다. 거기에 연별 공장 수익과 가공우유 수량에 따른 그래프가 올라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이 수치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2020년부터 정상에 올라 같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호 대표이사는 "돈이 생기면 계속 투자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했죠. 주정부에서도 뒷받침하고 있고, 도시의 가장 큰 업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체와 협력하고 포로나이스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익이 괜찮아졌으니 회사는 자선행위도 하고, 7-8년 전부터 사할린주(페르페니아만 컵)배구 경기의 일반 후원자로 나서고 있고, 올 3월에 새로 생긴 주 무술대회 후원자가 되었다고 김정호 대표가 밝혔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도 많이 하고 있다. 때로는 생선품으로, 때로는 재정으로 도와주고 있다.

포로나이스크 구역의회 의원으로서 김정호 대표는 이미 2번째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 경험 있는 경영자로서 예산위원회 위원이다. 주민들



의 민원도 들어주고 있다.

그의 가족은 외동딸과 그의 가족이다. 부인은 2년 전에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아 외로울 법도 한데 홀로 (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거주) 개인집에서 살고 있고, 혼자 김장도 하고, 가지미 식해도 담고, 나물 무치는 것도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똑딱 하면 된다고 그는 말한다. 전에는 이걸 아내와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씩씩하게 해내고 있다.

그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과 번영이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쯤 출근한다. 공식적 출근 시간은 8시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공장 전반을 돌아본다. 그 이후 처리해야 할 일들을 시작한다.

그가 평생 즐기는 체스와 낚시는 최근에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체스는 주로 컴퓨터와 하고, 최근에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안 좋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가끔 북쪽 지역으로 가 연락이 안 되는 곳에서 낚시하면서 1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전환을 하곤 했다고 한다.

애기 도중에 김 대표가 새고려신문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어 여러 질문도 하였다. 필자가 "한국어를 아시는지?"라고 물어보았다. 김정호 대표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조선어를 배웠는데 수업시간이 1주일에 2시간 정도였으며, 또 다시 조선어를 접하게 된 것은 대학시절이었다고 했다. 한 번 모스크바 출판사에서 2권으로 돼 있는 조로, 로조 사전을 출판 중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이 사전들을 주문했다고 한다. 사전들을 받고 나서 언어 자습을 시작했다. 그 당시 많은 단어를 외웠는데 수십 년 동안 언어를 쓰지 않아 많이 잊어버렸다고 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집에서라도 한국말을 조금 했다며 아버지는 1989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좀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한국에는 딱 한 번, 부모님과 함께 1989년에 가보았고, 아버지의 친척도 만나보았고, 조상의 묘지도 찾아 인사했다고 했다.

민족 뿌리에 관심이 있지만 그에게는 고향은 러시아 사할린이라고 말한다. 러시아 여행을 하면서 대학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즐기고 있고, 누군가처럼 사할린을 완전히 떠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사할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더욱 번창하여 지역 발전에 계속 투자하도록 앞으로 도 신경을 쓰겠다고 그는 말한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에너지의 힘> 전시회 사할린에서 개최

2월 17일(금) 주 미술 박물관에서 '사할린 에너지'와 사할린주 정부, 지역 미술단체 직원들의 성과로서 <에너지의 힘> 전시회가 열렸다.

사할린의 화가들은 '미술-열린공간에서(플레인 에어)'의 일환으로 예술작품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프리고로드노예(근교)'생산단지지를 방문했다. 화가들이 생산단지의 작업 전체를 이해하도록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생산 구역 견학을 진행했다. 특히 최첨단 생산 분야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화가들은 자신의 창작 에너지를 공동의 주제로 정하고, 정서적 감동으로 놀라운 기획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시작된 <에너지의 힘>은 '프리고로드노예' 생산단지라는 통합된 공동의 주제로 작품들을 제작했다. 2월 18일(토)에는 '사할린 - 2'기획의 대규모 생산시설이 14번째 생일을 맞았다. 27명의 사할린 화가들은 자체 창작으로 기술적인 개념을 분석적으로 표출한 가운데 학교들, 심지어 아마추어 및 전문 화가 세대들, 다양한 기법(회화, 그래픽, 디지털 그래픽, 도예, 설치미술)들을 묘사했다. 전람회의 중심 작품은 세르게이 스피라노브가 제작한 '사할린의 할아버지' 조형물로서 물, 공기, 흙, 불을 의인화한 4개의 빛나는 기둥들에 둘러싸여 있다. 4개의 자연 요소로 된 '상호작용'은 사할린의 보호자로서 사할린 땅의 번영을 위해 마법의 예식을 치르는 듯하다. 사할린 할아버지의 의상에 새겨진 소수민족 원주민의 고대 문양은 현대적 가스수송선과 배관 모양이 서로 얽혀 있는 패턴이다.

### Выставка «Сила энергий» откры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17 февраля открыли выставку «Сила энергий», которая стала резуль-

тат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рт-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создания арт-объ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ие художники посетили ПК «Пригородное» в рамках арт-пленэр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астера в полной мере погрузились в работу комплекса, для них провели экскурсию по территори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зоны. Впечатленные особой атмосферо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художники направили свою творческую энергию в общее русло и дали жизнь удивительному по эмоциональному воздействию проекту.

Стартовавшая «Сила Энергии» представила работы, объединенные общей темой – ПК «Пригородное». 18 февраля крупнейши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объект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отметил день рождения в четырнадцатый раз.

27 сахалинских мастеров «интегрировали» инженерную мысль в свое творчество.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различные стили (живопись, графика, цифровая графика, керамика, инсталляция), школы и даже поколения любителей и художников-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Так, центральная работа экспозиции, фигура деда Сахалина в исполнении Сергея Сплавина, окружена четырьмя световыми колоннами, олицетворяющими воду, воздух, землю и огонь. «Взаимодействуя» с четырьмя природными стихиями, покровитель сахалинцев словно проводит завораживающий обряд на процветание островной земли. В узорах его одежды древние орнаментальные мотивы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переплелись с очертаниями современных газопроводов и трубопроводов.

### 사할린 동물원에 티라노사우르스 골격 설치

사할린주 동식물원 (프리마티(영장류)) 전시관에 티라노사우르스의 골격을 그대로 복원해 설치했다고 논나 라브리크 주 문화고문서부 장관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했다.

백악기 티라노사우르스의 3D 골격을 '사할린의 사람들' 자선재단의 예고르 마케예브 회장이 동물원 측에 기증하여 이 공룡

은 즉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논나 라브리크가 말했다.

### Скелет тираннозавра установили в зоопарке на Сахалине

Точную копию скелета тираннозавра установили в экспозиции «Прима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зооботанического парк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Нонна Лаврик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3D-скелет тираннозавра мелового периода зоопарку подарил директор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Люди Сахалина» Егор Макеев. По словам Нонны Лаврик, он сразу приглянулся посетителям.

### 코르사코브에서

### <아트 아르바트(아르바트의 예술)> 자영업자들의 박람회 개최

2월 18일(토) 코르사코브 '오케안(해양)' 문화오락센터에서 (아르바트의 예술) 자영업자들의 2번째 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에서 전 사할린의 장인들은 자신이 손수 만든 제품들을 선보였다.

한 행사장에는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포로나이스크의 장인 40여 명이 이상이 모였다. 사할린을 주제로 만든 기념품들, 입체 회화, 점토 꽃꽂이, 밀랍초 등을 2월 23일과 3월 8일 명절을 맞아 많은 선물세트들에 관심을 가진 방문객들에게 선보였다.

안나 사비로와와 마리아 쉘레트코와 화가가 전시회에 대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구성했고, 창작적 명절을 지방자치단체 행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모든 창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찬란하게 자신을 표현하도록 도왔다.

이날 박람회 방문자들은 다른 장인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미술가와 조각가들처럼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며, 양초, 열쇠고리, 과자 장식, 축하 수첩 만들기 등에 따른 활동교실에는 사람들로 가득 붐볐다고 전해졌다.

(8면에 계속)

조국수호의 날 앞두고 특수작전에 참여하는 사할린과 쿠릴의 장병 모두가 고향에서 보내온 선물을 받았다. 소포 발송은 사할린 주정부가 담당했다.

조국수호의 날을 맞아 선물의 일부는 지난 주말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샤희초르스크에 있던 국가두마 의원 게오르기 카를로브 의원이 받았고, 남은 선물은 군부대를 통해 각 장병들에게 전달됐다.



전달된 선물들에는 사할린에서 생산된 제과, 통조림을 비롯해 '통합 러시아'당이 주도한 <동참>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의 학교 및 유치원의 학생들이 만들고, 사연을 적은 카드들이 들어 있다.

소포물 기증에 사할린 사업가들이 도움을 준 가운데 대형 자선사업체인 '스틀리차' 회사 그룹, '타이라-돌린스크' 수산업체, '안타르노예'유한책임회사가 참여했다.

특수작전에 참여하는 장병들을 위한 선물을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천영근)에서도 준비했다.

한인회에서 이번에 컵라면 20박스, 믹스커피 30박스, 물티슈 등을 보냈다.

"우리가 평화롭게 잘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내, 자매, 어머니, 부모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정신을 함께 지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시요." 라고 유영희 <사할린 한인>시한회 부회장이 전했다.

이 단체 임원들은 국가 수호자의 날을 앞두고 21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위치한 국군병원(원장 남 위탈리)을 찾아가 장교들에게 차, 샴푸세트, 한국 과자 등 선사했다.

### 2월 23일을 맞이하여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 주 향토박물관, 국제 모국어의 날 기념

2월 21일은 국제 모국어의 날이다. 유네스코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각각의 모국어를 존중하자는 뜻에서 1999년에 지정한 국제기념일이다. 이날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국제 모국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모국어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과 이야기를 사할린 국립대 생물학 박사 올가 치렌도르지예와(부랴트인), 사할린국립대 문학박사 엘레나 이콘니코와 교수(러시아인), 유일한 닙허어 민족지 편집장 알렉산드라 후리윤(북부 소수민족 원주민, 닙허어)이 들려주었다.

주 향토박물관 부장 진 율리아 박사는 이날 사할린에서의 한국어 보급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할린 한인 동포사회에서 한글 보급의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1959년에 유시욱 시인이 쓴 일기와 1949년에 동포 여성이 쓴 편지를 보여주었다. 진 박사는 1945-1963년간 사할린에 전존재했던 조선학교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새고려신문사가 소장한 조선어교과서를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 2023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설명회 (간략)

#### 1.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개요 ※외교부(재외동포과)

##### 1. 사업 내용

□ (목적)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원 대상)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주요 내용)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 지원

##### 2. 사업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5.26. 제정, ‘21.1.1. 시행)

○ 상기 법 제정·시행을 통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법적 근거 마련)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92년 최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이후 지속 실시해오던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15.12월 한일 정부 간 공동으로 시행해온 영주귀국사업의 종료 합의 이후 '16년부터 동 사업 한국 정부 단독 실시

- (지원 대상범위 확대) (기존)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 자녀

→ (확대) 사할린동포,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07년까지는 사할린동포 1세만을 영주귀국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08년부터사업 확대로 1세의 배우자 및 장애 자녀도 영주귀국 사업 대상에 포함

#### II. 주요 지원 내용

##### 1. 지원 대상 ※외교부(재외동포과)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대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법 제2조제1항)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 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

- (배우자) 법적 배우자만을 의미

- (직계비속) 사할린동포의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

※ 동일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중 2명 이상이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

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직계비속 1명의 신청만을 접수

□ 상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 중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 필요

☞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은 p.8 참조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이후 외교부장관의 지원 여부 결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실시 예정

※ 2023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인원은 총 270명

##### 2. 국적 취득 및 출입국 관련 지원 ※법무부(국적과, 체류관리과)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45.8.15.까지 출생) 및 그의 자녀(사할린동포 2세)까지 국적판정대상자로 확대하고, 국적판정자의 배우자는 간이귀화로 포섭

※ 동반가족 중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사할린동포 3세, 4세 등)의 경우, 별도 국적법상 요건 충족을 통해 국적 취득 가능(국적판정대상자 미포함)

○ 사할린동포 2세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과의 연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할린동포(1세)와 그의 자녀(2세)까지 국적판정대상자로 확대하고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

- 가족 결합 등을 고려하여 국적판정 신청자의 배우자 간이귀화 신청 前체류자격 부여(F-1), 배우자 사망·혼인관계 단절 없이 간이귀화(국적법제6조제2항 제1호·제2호)\*로 국적취득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복수 국적 유지 가능

\* 혼인 및 국내 거주 2년 또는 혼인 후 3년 및 국내 거주 1년

##### [국적부여 방법 및 복수국적 인정 여부]

[기존]			[현행]		
대상	국적부여	복수국적	대상	국적부여	복수국적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세	· 국적판정	· 유지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사할린동포 1세>	· 국적판정	· 유지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2세	· 국적회복 특별귀화 간이귀화	· 신청 방법별 상이	· 그의 자녀 <사할린동포 2세>	· 국적판정 (65세 이상 국적회복)	· 유지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간이귀화	· 유지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1세 또는 2세의 배우자	· 간이귀화	· 유지 (요건 충족시)

##### 4. 귀국 및 정착, 생활 지원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1인당 매월 75,000원) 지원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2인 1가구 기준 17,700,000원) 지원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1인당 1,400,000원) 지원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복지 급여 지원

○ 아래 법률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복지 급여

를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지자체(시·군·구)로 신청

- (통보)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 결정·통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 특례에 따라 선정 시 해당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령

※ 소득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 결정(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특별생계비(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미산정

※ 재산 :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미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 사할린동포(1세 유자격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 급여 수령,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결정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2세)의 경우

※ 국적 취득 시 사할린동포와 동일 특례 적용

-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 최대 3년 범위 내 보장

※ 국내적응기간감안, 생계급여수급자라도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

※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임에도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시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

② (기초연금법)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

③ (장애인복지법)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원

##### 5. [참고] 현지 잔류 사할린동포 지원 내용

□ 사할린동포 1세 일시모국방문 사업

※ 사할린동포가 동사업 참여 경험없이 사망 시그 자녀(사할린동포 2세) 대상 지원

○ △한국 전통문화 체험, △친지방문,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 지원

□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

○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에 따른 현지 가족과의 이산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러시아·CIS 지역 거주 2-3세 가족을 국내로 초청

(다음 호에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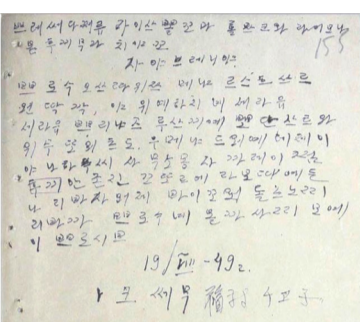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родного языка отметили на Сахалине

21 февраля отмеча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родного язык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этому дню, провели 21 февра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ошли несколько лекций-выступлений, посвященных развитию и истории бурятского, русского, нивх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Интересные факты и сюжеты о родном языке рассказали Ольга Жундеевна Цырендоржиева, кандидат би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конникова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доктор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Хурьон Александра Владимировна, редактор единственной в мире газеты на нивхском языке «Нивх диф».

Выступление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и Дин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ахалине.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б основах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ее истории, а также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в среде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подтверждение она показала слушателям два интересных письменных артефакта – днев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и поэта Рю Сиука, написанный в 1957 г., и письмо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янки 1949 г., в которой та просит разрешить ей остаться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Кратко Ю. Дин рассказала и о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овали в 1945–1963 гг. и показала учебник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дкостью и хранятся в архиве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Федор Мыгун,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краеведческим музеем



## В Россию с кашеваркой, в Корею с хлебопечкой

Я помню еще те времена, когда домой мы везли кашеварки, а в Корею приезжали со своими хлебопечками. А как иначе, если корейский хлеб ну никак нельзя было назвать «хлебом насущным» - его легко можно было скатать в маленький катышек, настолько он был воздушным и пористым. Про другую же еду, которую требовала наша русская часть желудка, и речи не было. Поэтому и приносившие наши хозяйки сами и сметану делать, и творог варить, и кефир настаивать.

Но времена меняются. С глобализацией во многих сетевых магазинах Кореи стали продавать творожную Рикотту, датскую сметану, цельнозерновой хлеб, норвежскую малосоленую семгу, даже подобие Краковской колбасы под смешным названием «Килбаса» появилась. А также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местах пло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 на Текколе в Ансане, в Хамбак-маэлье в Инчхоне, на Техасе в Пусане, на Вольгкодоне в Кванджу - открылись магазинчики и лавки, где можно купи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нам продукты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ши предприимчив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научились производить и молочные продукты, и рыбные, и колбасные, и хлебные - Докторская колбаса и варено-копченая, творог и ряженка, нарезной батон и «Бородинский» хлеб, сельдь пряная и семга малосоленая.

Одним из флагманов росси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стала компания «Роял Фуд», завод которой находится в г.Кимхэ недалеко от Пусана. Основатель бренда,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ц в 3 поколении, так определил свою цель: «Мы хотели удовлетворить вс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пристрастия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мигрантов, а также создать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своих». Благодаря широкой рекламной акции, кото-



рую провел Роял Фуд накануне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ов, на наших столах была и «Селедка под шубой», и мясная нарезка по-нашенски, и рыбное ассорти.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в чужой стране стоит невероятных усилий и смелости, и мы очень гордимся успехами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Корее. Возможно, «Роял Фуд» не единственны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мясных и рыбных продуктов в Корею на сегодня, 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 них начинается традиция меценатства сред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Корею. Два года подряд компания выделяет средства на подарки победителям конкурса среди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Споём все вместе Коре-Ариран». 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Новый год они оказали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мощь детям коре-сарам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развития здоровья из Общества инвалидов. 45 семей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получили и вкусные подарки, и небольшую денежную помощь.

Такие первы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являются не только примером соци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среди наши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ю, но и формируют культуру регулярной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Жанна Тен**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статью Ким Тхе Ик(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представителя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ладимиру Николаевичу безразличны проблемы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Он хорошо владее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находясь сейчас на заслуженном отдыхе, решил осветить одну из проблем –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Автор много цитирует высказы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в том числе профессора прав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Цой Генг Ок.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это люди, вынужденные в своей жизни четырежды менять гражданство.*

*Бок Зи Коу*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5, 6)**

Далее «Процедура «Опреде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роводится в случае отсутствия четких фактов получения или налич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атья не содержит детализации процедуры,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яются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Цитата **최경옥교수**: «16 января 2021г. решением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расширен список лиц,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роцедуру опреде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С целью сокращения случаев разлученных семей детям,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в Корею с января 2021г и у кого родители относятся к первому поколению,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опреде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и в случа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решения могут оставить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роцедура опреде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может длиться один год и для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го процесса необходимо в это время находиться в Корею, нужно иметь это ввиду» - было сказано на неофициальной встрече 13 мая 2021 в департаменте граждан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конец цитаты.

Цитата **최경옥교수** о процедуре **국적회복**: «Статья 9, п.1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ласит:» Иностранцы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имели гражданство РК могут стать гражданами РК, получив разрешение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В отношении действия этого положения н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они утратили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риняв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но они вправе восстановить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тому что Статья 10 (обязанность отмены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для граждан Кореи), п.1 гласит:» Гражданин РК обязан отказаться от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с даты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К». Но несмотря на п.1 пункт 2 допускает исключение. Статья 9 п.2 «несмотря на п.1 лицо, которое подпадает под один из ниже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обязано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с даты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отказаться от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или же написать на имя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Обязательство о том, что он не буд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ами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 Введено 2010.05.04 >» конец цитаты.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65лет, подпадающих под программу репатриации по Спец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ействует п.4 статьи 10, по которому они могут не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росси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Рассмотрим практику реализац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гражданства.

В самом «Специальном законе» вопрос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не определен. Порядок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переселяющихся по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пределен в документе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 разъяснения по реализации переселения и обустройству репатриантов.

• Репатриант –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

ник и его дочь/сын (2 поколение) включаются в список лиц, подпадающих под процедуру «Опреде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де-факто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 Прошедшие процедуру "Опреде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супруг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1 и 2 поколений получают гражданство по упрощенной процедуре, сохраняя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Здесь у меня возникает вопрос.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2-го поколения, подпадающие под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по факту получают гражданство по упрощенной процедуре. Как это соотносится с «Законом о гражданстве», в котором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И почему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подпадающие под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лишены права упрощенно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определяет принцип наследова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от родителей и не определяет обязательность того, чтобы они были живы. Мне кажется, это вопрос доброй во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законода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к потомкам умерших на Сахалин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мой взгляд, РК проводит политику ущемления пра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 которых родители не дожили до 1.01. 2021г. – даты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Право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국적회복** в упрощенной форме долж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живы ли родители, мобилизованные на Сахалин в годы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в 2022г. поправки депутатской группы Ли Мен Су к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не оставляют надежд на положите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2-го поколения,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просто не пережили те 15 лет, которые ушли на принят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В такой обстановке сахалинцы не опускают руки, самые одержимые собирают документы и добивают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Но эта процедура непростая и зависит от многих семей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заявителя.

Может ли изменить ситуацию массовый поток обращений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в службы иммиграции в купе с обращениям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 депутата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любом случае «дорогу осилит идущий». Хотелось бы услышать мнения читателей по данной проблем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едседатель Цой Ен Гу)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обсуждением и выработкой решений по проблеме с участием экспер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несите свой вклад в инициативу петербургских сахалинцев.

Комментарии и обращен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ссылок документов (источники цитат) с переводом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можете направлять на мой адрес: [mykandym@gmail.com](mailto:mykandym@gmail.com)

**Ким Тхе Ик (김태익), г. Москва.**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можно и онлайн

**Сеул, 17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 Кореи (CUK) готовится продвигать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едлагая различные онлайн-программы. Эти программы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институто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снованным в 2022 году CUK, перв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онлайн-университетом.

Курс Quick Korean Premium — это обновленная версия «Quick Korean» (Быстрый корейский),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которая собрала более 10 миллионов просмотров на YouTube из 200 стран по всему миру. Люди могут посещать онлайн-занятия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взаимодействуя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инструкторами для углубл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CUK начал бесплатно выпускать программу «Quick Korean» на YouTube, Naver TV и других платформах в 2014 году. С тех пор программа получила комплименты от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 всему миру.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курс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ТОPIK) — это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работанна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мочь иностранцам корейцам и некорейцам получить высокие баллы в тестах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льзователи могут свободно выбирать курсы чтения, аудирования и письма и учиться онлайн, готовясь к тестам ТОPIK I и ТОPIK II. После занятий они могут пройт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с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и получить от них обратную связь, чтобы добиться максимального эффекта от обучения.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ИГЛАШАЕМ!

2 марта 2023 г. начинается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огласно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27 февраля 2023 г. в 16.00 в актовом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остоится собрание для желающих выехать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 Ким Чен Ын второй год пропускает церемонию в память покойного отца

Высшее руководство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16 февраля посетил Дворец Солнца Кымсусан по случаю 81-й годовщины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окойн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Ира, отца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а. По сообще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льного телеграфного агентства (ЦТАК),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им Док Хун,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Чхве Рён Хэ,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центральной военной комиссии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Ли Бён Чхоль и други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чины. Нынешн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н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я в данной церемонии.

###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отклонило приглашение Севера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отклонило заявку Меж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азлучённых семей на посещение СК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северной стороны. Об этом 17 февраля заяв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сс-секретаря ведомства Ли Хё Чжон. По её словам,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 итогам внутренней проверки и консультаций со смеж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которые показали отсутствие доверия к организации, выдавшей приглашение, и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Ли Хё Чжу выразила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азлучённым семьям, добавив,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ит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решени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еж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азлучённых семей получила приглашение для членов разлуч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посетить СК, после чего 10 февраля обратилась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заявкой в министерство.

### РК и увеличит число авиарейсов с Китаем

РК конца до февраля увеличит число еженедельных авиарейсов с Китаем с текущих 62 до 80. С марта частота воздушных рейсов возрастёт до ста в неделю. Решение о снятии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в отношении прибывающих из Китая будет принято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и,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страны Хан Док Су. Такая пози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ъясняется стабилизацией ситуации вокруг коронавируса, несмотря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выдачи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гражданам Кита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реднесуто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стабильно снижаться восьмью неделями подряд, не превышая отметки в 20 тыс. человек. По слова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сохранение положительных тенденций станет поводом для начала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а о полной отмене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и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семидневного карантина для заболевших.

### В РК быстро сокращ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а фоне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в РК отмечено резкое сокращ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детских садов.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30 923 детских сада. Это на 9 315 меньше, чем в конце 2017 го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закрылся каждый четвёртый детский сад. Наибольшее снижение показателя отмечено среди небольших детских садов семейного типа, которые обычно работают внутри кварта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ли в частных секторах. Они всегда пользовались 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благодаря удобному расположению. Однако их численность сократилась почти на 40% с 19 тыс. до 12 тыс.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случае сохранения нынешнего уровня рождаемости, темпы закрытия детских садов возрастут.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требую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данную проблему.

### Снежные горки в Сеуле посетили более 8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й зимой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в парке вдоль реки Ханган в Сеуле были открыты снежные горки. Они работали с 23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12 февраля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их посетили 87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54% больше, чем в 2020 году. В среднем данные объекты посещали 1.153 человека в сутки в будние дни, а по выходным вдвое больше. Снежные горки организовываются ежегодно. Но в период актив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от этой практики временно отказались.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готовке в парке бассейнов, которые начнут работу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RKI)

## Брифинг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в 2023 году

### I. Краткое описание проекта (\*Отдел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МИД)

#### 1. Содержание проекта

**Цель:**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завезены на Сахалин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но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остались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а также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 Получатели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их семей (супруг(а),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согласно Ст.2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Осно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Оплата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необходимых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и расходов на устройство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рас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за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и пр. согласно Ст.5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2. Основан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Основание:**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нятие 26.05.2020,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01.01.2021)

~ \*Подготовка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и \*достижение расширения диапазон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ерез принятие/исполнение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Закона

**- Подготовка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Впервые подготовлено законное основание для проекта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осуществлявшегося после первого этапа пере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1992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вухсторонней договоренностью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К и Японии

\* После достижени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завершении проекта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проводившегося совмест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К и Японии (декабрь 2015г.), с 2016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водит данный проект **единолично**

**- Расширение диапазон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существующий)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я, супруги и дети-инвалиды → (расширенный)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я, супруги и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До 2007г.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я могли переселяться на ПМЖ, но в связи с расширением проекта с 2008г. в проект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включены также супруги 1 поколения и дети-инвалиды

### II. Основные пункты поддержки

#### 1. Получатели поддержки

**Согласно Ст.2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лучателями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являются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ей(супруг(а),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Граждане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род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либо пересел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 до 15.08.1945 года (Ст.2 п.1 Закона)

~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ей: Супруг(а)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К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членам семей относятся их супруги, вместе переселяющиеся на ПМЖ, и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 супругой(ом). **Члены семей умер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 Супруг(а): только законный супруг(а)  
- Прямой потомок: прямые потомк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случа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двумя и более прямыми потомками одного и того же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в качестве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 члена семьи по п.2 Ст.2 Закона, **заявление принимается от одного прямого потомка, относительно которого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дал письменное согласие**

Граждана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вышеуказанным условиям, которые **желаю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согласно Ст.6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и Ст.3 Указа о вступлении Закона в силу

-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огласно решению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поддержки (Ст.4 Указ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а поддержка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окончательно выбранных в качестве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и получивших уведомление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2023 году составляет 270 человек

#### 2. О получ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Отдел гражданства, вопросов миграции Мин-ва юсти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рожденные до 15.08.1945г.) и их дет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2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ившиеся на ПМЖ,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РК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а супруги граждан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относятся к упрощенной системе натурализации.

\*Есл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членом семьи является не ребенок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а его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3-го, 4-го поколения и т.д.), возможно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согласно другим норма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гражданстве (к получателям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не относятся)

~ Учитывая то,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2 поколения, сохраняя свою идентификацию, хотели бы общности со своей Родиной и т.д.,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е поколение) и их дети (2-е поколение) относятся к получателям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и фактически сохраняют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 Учитывая вопрос объединения с семьей и пр., при получ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путем получения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F-1) и натурализации по упрощенной системе, исключая случаи прекращения брачных отношений, либо смерти супруга(и) (подпункты 1, 2 п.2 Ст.6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до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натурализацию по упрощенной системе супруга(и) заявителя-получателя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может сохраняться при условии подписания клятвы о неиспользовании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2 года в браке и проживания в стране, либо через 3 года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и брака и 1 года проживания в стране

### <Способ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и признание втор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Сейчас]			[Изменение]		
Заявитель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Заявитель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1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ившийся на ПМЖ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охран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переселившийся на ПМЖ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охран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2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ившийся на ПМЖ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Отлича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пособ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Его ребенок -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2 поко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охранение
Супруг(а)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Упрощен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Сохран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и супруг(а) его ребенка	Упрощен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Сохранение (при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требований)

### ~ Введение норм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ереселившимся на ПМЖ(внутренняя инструкция)

- Увеличение заявителей и мест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конкретизация процедуры определения 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систематизация определения и рассмотрения, а также последующ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супругу(е) заявителя-получателя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и пр.(F-1)

~ Разрешение принимать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от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ереселяющихся на ПМЖ, в специально назначен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РФ и страны СНГ)

-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ижен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органами с целью обеспеч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что по положениям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было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в РК, в специально назначен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учитывая основные цели принят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и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и т.д.

\*Завершено установление связи электронной системы Единой цифр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истемы(G4K)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родолже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Брифинг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в 2023 году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 3. Об аренде гос.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Мин-во транспорта, ЛН)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получателям поддержки арендное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с хорошими жилищными условиями из пусту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 При установлении получателя поддержки и желаемого района заселения(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сентябрь-октябрь 2023г.)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становить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о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жильцов арендного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районе и определить незаселенные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Согласно Ст.5 Инструкции по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о будущих жильцах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возможн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жилья в диапазоне до 5%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квартир в квартале.

~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обеспечение заселения в районы, где проживают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либо в близлежащие кварталы с целью достижения более легкого обустройства и обслуживания жильцов и пр.

\*Но т.к. число переезжающих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мест про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Сеул, Ансан, Инчхон Нонхён и т.д.) незначительно, а число новых арендных помещений недостаточно, усложняется массово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жиль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 кварталам планируется осуществлять, максимально учитывая пожелания по заселению тех, кто подаст заявления через Красный Крест

~ Но в случае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пустых квартир в каком-то определенном районе в связи с большо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заявлений на заселение в нем, распределение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сле определения порядка первоочередности заселения.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по каким-то причинам не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 заселение в желаемый район,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арендные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в близлежащих районах

\*Порядок первоочередности заселения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ся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между РООСК и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Распределение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 принципу 1 семья из 2 чел. согласно нормам оплаты залога на аренду(17,7 млн.вон/1 семь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но

~ В случае желания совместно проживать семье в составе более 3 чел.,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приоритетно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в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площадью более 40м<sup>2</sup> путем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уммы поддержки залога на аренду

### Кварталы, дома и квартиры распределяютс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жеребьевки

(Способ жеребьевки) Используется функция жеребьевки(случайный отбор) жилищной системы ЛН, но распределение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учетом приоритетной очередности граждан в преклонном возрасте и имеющих трудности в передвижении и т.д.

При заселении в арендное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залог на аренду будет дополняться бюджет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сего 175 семей, около 3,1 млрд.вон)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Возможна оплата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около 220 тыс.вон, пристольные города 39м<sup>2</sup>) получателям пособия на содержание жилища

### 4. О переселении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Мин-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o **Выплата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собия –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жильц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рендны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в размере 75 тыс.вон на 1 чел. ежемесячно

o **Оплата залога на аренду арендного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и аванса на расходы з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вновь прибывшего в страну на ПМЖ (17 700 000 вон на 1 семью из 2 чел.)

o **Оплата расходов на авиабилет и хозяйственный инвентарь и пр.(1 400 000 вон на 1 чел.)** вновь прибывшего в страну

o **Выплата социальных пособий** переселившимся на ПМЖ

~ **Выплат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оциальных пособ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лучае соответствия критериям получателя пособия согласно нижеуказанно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города, района, уезда)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 **Уведомле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направляет уведомление о решении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лучения пособия

1) **Закон о гарантии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граждан и Закон о пособиях на оплату жилья:** В случае соответствия льготной категории получателей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выплачива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собие(основные средства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пособие на мед.услуги, пособие на оплату жилья и пр.)

\* **Доход:** После расчета оценочной суммы дохода выносится решение о выплате(не относится к признанной сумме дохода)

- Специальное пособие(арендная плата и коммуналь-

ные расходы за арендное гос.жилье) не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по доходу

\* **Имущество:** Сумма превышения(включая автомобиль) по базовому имуществу не учитывается в качестве денежного эквивалента имущества

=>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1 поколение)**

- \*Выплат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вида пособия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гарантии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граждан, \*решение по нормам оценочной суммы дохода

=>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2 поколение)**

\* При получ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применяются такие же исключения, как относительн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страну до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натурализации) выплачива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вид пособия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гарантии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граждан, но учитываются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в РК,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натурализации; гарантируется максимум в течение 3 лет

\*Учитывая период адаптации в стране,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в течение 3 лет откладывается применение условий по участию в частном бизнесе

\*При подтверждении факта, что гражданин по истечении 3 лет не работает, не смотря на трудоспособность, он признается в качестве условного получателя пособия

2) **Закон о социальной пенс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пожилой гражданин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ценки дохода и имущества относится к лицам с уровнем ниж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выплачивается социальная пенсия

3) **Закон о благосостоянии инвалидов:** В случае, если сред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валидов с тяжел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18 лет есть те, чей уровень дохода ниж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выплачивается пенсия по инвалидности

### 5. [Для справки] Поддержка оставшихся в местах про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o **Проект посещения Родины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1 поколения**

\*В случае, если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умер, не поучаствовав в данном проекте, поддержка его детей(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2 поколения)

~ Экскурсии, связанные с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ой, посеще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ограмма мед. обследования и пр.

o **Проект посещения Родины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2-3 поколения**

~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в связи с пересел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ПМЖ приглашение в РК членов семей 2-3 поколения, проживающих в РФ и странах СНГ

### III. План проведения

#### 1. Годовой план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о получении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и вынесение решений о получателях поддержки**

~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02.03.2023-30.06.2023) → МИД: Отбор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июль 2023г.) → МИД: вынесение решения о гражданах,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а также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заявителей(август 2023г.)

**Проведение брифинга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сентябрь 2023 г.)

~ Сообщ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и о быте(арендные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и т.д.) в стране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к переселению на ПМЖ граждан на 2023 год

**Осуществлени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ПМЖ в октябре 2023г.

\***Организация базы помощи по адаптации к жизни в РК и обустройству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октябрь - декабрь 2023 г.)**

~ Мед.осмотр, помощь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на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и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араметр	Период(предв.)	Содержани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одготовка	16.02.2023	Совещание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02.03-30.06.23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Красный Крест РК,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Июль	Отбор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Комиссией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Август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о решении(МИД), опрос по арендному жилью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ПМЖ	Сентябрь	Брифинг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Октябрь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ПМЖ (Красный Крест)
Помощь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Октябрь	Мед.осмотр
	Октябрь - ноябрь	Регистрац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й
	Октябрь - декабрь	Размещение базы помощи
	Ноябрь - декабрь	Помощь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и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заинтересован органы)

\*Вышеуказанный план может измениться.

### 2. Период и способ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Период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02.03.2023 – 30.06.2023**

\*После указанного периода документы не принимаются

#### Список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В случае, если сл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факт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документам, либо необходимо выясн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факты,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гражданин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б основных данных, копия паспорта и т.д.)

\* Предоставить априори оригиналы свидетельств и копии документов (в случа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копии,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при себе оригинал).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заключении брака должно быть выдано не ранее, чем за 3 месяца до по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 К документам, выданным в РФ и др.странах, необходимо приложить перевод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с указ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ереводческой компании/переводчике)

\* Принятые документы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при желании сохранить оригинал, обязатель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пию)

1) **Общие для всех документы:**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1 экз., фотография 1 экз.

\*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можно заполнить в месте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2) **Документы,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туса заявителя**

-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либо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ожд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или факт, что заявитель является гражданином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ереселившимся на Сахалин до 15.08.1945 года – 1 экз.

-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ей:**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ил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лицо является супругой(ом), прямым потомк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ли его(ее) супругой(ом) – 1 экз.

\***В 2023 году не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особые основания для первоочередного отбора**

#### Способ и процедур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В течение периода приема заявлений заявитель собирает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и лично подает их в центр приема документов(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Красный Крест) по месту нахождения(за рубежом, в стране)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через почтовые услуги н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личности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лично:**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 личном посещении заявителя.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членом семь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обязательно лич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 его подпись

\*В случа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членом семьи в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когда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находя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РК, обязательно совмест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В случа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членом семьи в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когда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находится в РК, а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находя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РК, после приема документов в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росить подтверждения и подписи заявления от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через Красный Крест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В случае невозможности личной по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заявителем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и т.д.,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через представителя(3-е лицо) при наличии следу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1) Объяснительная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через представителя, 2) Доверенность от заявителя, 3) Копия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заявителя, 4)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5)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заявителе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Объяснительная: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причину невозможности личного посещения заявителя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за рубежом:** Если заявитель проживает за рубежом, о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в РК:** Если заявитель проживает в РК, о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в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К

#### Внимание!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Если сахалинск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умер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подали заявл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Заключение о смерти с указанной датой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заявитель не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 **Заключение о смер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уда, куда подавался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или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К)**

(Окончание следует)

# '사할린동포법' 개정 요구가 계속되는 이유는?



## '사할린동포법' 개정 요구가 계속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4~6만명 사할린 이주 종전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정착

최근 사할린동포들을 중심으로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할린동포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할린동포 2세 이수진(남, 81) 씨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2019년 사할린의 주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최근 사할린동포들을 중심으로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할린동포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할린동포 2세 이수진(남, 81) 씨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 망국의 한(恨)이 서린 사할린동포들의 역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얼마 전 어느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사할린 동포 1세 박화자(102) 할머니가 아리랑을 부르는 영상이 올라왔다. 박화자 할머니는 현재 가족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지만 아리랑만은 또렷하게 부른다는 것이 딸 박점미(72) 씨의 말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사할린은 남한 면적 3분의 2에 달하는 큰 섬(72,492km<sup>2</sup>)이다. 현재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약 2만 6천 명이 우리 사할린동포다. 사할린동포들의 역사는 망국의 한이 서린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사할린 절반에 달하는 영토의 지배권을 가져왔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는 일본이 사할린 전체를 사실상 지배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사할린의 풍부한 목재와 광물을 전쟁물자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척박한 땅으로의 이주를 꺼려했고, 일본은 당시 식민 치하에 있던 한국인들을 사할린으로 이주시켰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국인은 약 4~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하자 사할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일본과 한국 어디로도 돌아가지 못한 채 사할린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 사할린→日군함도, 3000여명 이중징용 당하기도

기자는 지난 주말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 중인 사할린동포 2세 이수진 씨를 만났다. 2011년 아내와 함께 영주 귀국한 그는 과거 러시아 국영 전력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사할린 한인 이산가족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故송해 선생님과 함께(왼쪽이 이수진 씨) | 이수진 씨의 빛바랜 가족사진

그는 러우전쟁의 여파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혀 사할린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국민들 중에서 러우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이 안타깝다. 정부의 통제가 심하고 아직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수진 씨에게 어린시절 사할린동포 1세였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물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아버지는 1944년 일본으로부터 이중징용을 당해 사할린에서 일본 하시마 탄광(군함도)으로 끌려갔다.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온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곳이었지만, 아버지는 도둑 배를 타고 몰래 탈출 후 여구절 끝에 사할린으로 돌아왔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당시 이수진 씨 아버지처럼 사할린에서 다시 일본으로 이중징용을 당한 사할린동포는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다.

### 사할린동포의 후손 범위 확대 필요

이수진 씨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몸이 아플 때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아직 자신에게는 두 가지 바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첫번째는 사할린동포법 개정이고

▲두번째는 사할린동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마련이었다.

현재 사할린동포법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만이 사할린동포로 인정받아 동반가족 영주귀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할린 한인이라도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사할린동포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사할린동포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이수진 씨를 포함한 사할린동포들의 주장이다.

역사학자 임용환(61) 박사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4408명, 2021년에는 334명의 사할린동포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영토 및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다. 과거 국가가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그들에게 이제라도 우리가 힘과 성원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구위기를 타계할 방법의 일환으로 사할린동포를 포함한 750만명의 재외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주간기쁜소식)

# 25년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여성 상흔 기록한 안세홍·야지마스카사 사진전

[더팩트 | 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25년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증언과 고통을 기록한 안세홍·야지마스카사 사진전이 오는 26일까지 광주 '갤러리 포도나무'에서 열린다.

'여섯개의 눈, 위안부 할머니의 일상'이라는 표제를 내건 이번 사진전은 한국과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140여 피해자를 만나 기록과 지원을 해온 '겉겹 프로젝트(JUJU project)'의 일부이다.

또한 강제 징집, 감금, 성폭력, 버려짐 등 전범 국가 일본의 이 모든 만행과 반인권적인 행위가 피해자의 가슴속에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있음을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겉겹 프로젝트라는 명칭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나라 여성들은 일본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야만 했고, 이들 피해 여성들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 종교적 차별, 가해국과 피해국의 외면 등이 모든 것에 그녀들의 고통이 겹겹이 쌓여만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표제이다.

겉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안세홍 작가는 사진전과 강연회 등 활동을 통해 힘겹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피해자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집을 고치고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다.

안 작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아닌, 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다. 더 이상 왜곡·은폐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기록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기억과 눈물이 아닌, 모두의 역사와 인권 문제로 남을 수 있도록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전쟁범죄의 관점에서 진상 규명과 반전 평화를 위한 초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겉겹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다.

안 작가는 일본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숨겨



일본군 성 노예 피해 여성의 증언을 영상 기록하고 있는 안세홍 작가./겉겹 프로젝트 홈페이지 캡처

진 진실과 피해자의 삶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고통을 증언과 사진으로 기록해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생존자들을 발굴하고, 또 다른 전쟁에서의 피해 여성들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안 작가는 중국에 남겨진 생존자 취재(2003년)에서 시작해 러시아 사할린 피해자와 위안소 조사(2009년) 등 한국과 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수십 곳의 위안소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해 왔다.

안 작가는 그 결과물들을 △도쿄,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사진전 △서울, 대구, 제주, 마창진 등 국내 지역 순회 사진전 △미국 뉴저지, 양코르 와트 등 세계 주요 도시 기획전 등을 통해 알렸으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출판물들을 펴냈다.

이번 광주 전시에 대해 안 작가는 "동티모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조선 등에서 만난 140여 피해자, 그녀들의 팔뚝에 새겨진 일본식 이름, 토막 난 기억과 증언은 당시의 고통을 생생히 전해 주었다"며 "아시아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모습은 70~80년 전의 과거가 아닌 우리가 풀어야 할 미래의 메시지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 재외동포청 유치 나서 이주민 정착 경험 축적

광주시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재외동포 권익보호와 국내 정착의 전진기지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신설할 예정인 재외동포청 유치 신청 절차를 곧 밟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인 월곡동 고려인마을 공동체 조성 경험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의 다양한 민원 처리와 권리 실현을 위한 재외동포청을 끌어온다는 것이다.

시는 7000여 명이 거주 중인 고려인마을 공동체를 토대로 국내 귀환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정보와 효율적 지원체계를 제공해 안정적 정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에 따라 우크라이나 떠나게 된 재외동포들을 위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항공료 지원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를 통해 그동안 875명의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을 국내에 입국시켰고 이 중 700여 명이 광주에 정착했다. 이들이 광주에 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년 동안 시민과 기업 등 지역사회가 '항공권' 구매비용으로 모금한 후원금은 9억여 원에 달한다.

시는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 정착에 필수적인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에는 이 같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오는 5월 광주에서는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가 출범한다. 광주에 본부를 두게 될 연합회는 중앙아시아 재외동포들의 국내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세계 193개국 재외동포 732만 명을 위한 대외정책과 각종 교류사업을 총괄할 재외동포청이 광주에 들어서면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위상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법무부와 외교부, 병무청 등 여러 중앙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업무를 일원화해 재외동포를 지원하거나 상담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국적이나 입국·체류 문제는 물론 국내 정착 과정에서 법체계를 잘 몰라 겪는 고통을 덜어주게 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들을 위해서는 각종 교류사업으로 상호이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한국과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상반기 중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방침이다. 외교부에서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넘겨받고 재외동포재단 사업기능을 통합해 법무, 영사, 병무 분야의 윈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위치한 제주와 근대 이민의 출발지로 거론되는 인천, 정부 주요 부처가 집적화된 세종시, 다문화 인구가 많은 경기 안산시가 저마다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고려인들의 정착을 돕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ярмарка самозанятых «Арт Арбат» прошла в Корсакове

В КДЦ «Океан» в Корсакове 18 февраля прошла вторая ярмарка самозанятых «Арт Арбат».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мастера со всего Сахалина представили продукцию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сорока мастеров из Корсако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инска и Поронайска. Вниманию посетителей они представили сувенирную продукцию сахалинской тематики, картины в стиле стринг арт, керамическую флористику, свечи из пчелиного воска и множество подарочных наборов к 23 февраля и 8 марта. Идеями вдохновителями выставки являются художницы Анна Шабьрова и Мария Цветкова. Праздник творчества охотно поддержа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омогла всем креативным людям заявить о себе, как можно ярче.

В этот день посетители ярмарки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полюбоваться работами других мастеров, но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роли скульпторов и художников. Полный аншлаг вызв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свечей, брелков, росписи пряников и праздничных блокнотов.

## 가정 인형극 경연에 сахалин 주민 참가 요청

Сахалин주에서 제5회 가정 인형극장 축제에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23년 경연에는 러시아 민화가 주제라고 сахалин주 인형극장 홍보부가 전했다.

인형극장이 있는 가정과 가정 인형극장을 만들고자는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다. 공연에는 성인과 아이들이 참가해야 한다.

신청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сахалин 인형극장에서 접수한다.

이후 연기 훈련과 공연을 위한 기재설비의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일련의 온라인상 상담과 훈련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가정 인형극 공연 영상을 녹화하여 인형극장에 이메일

로 발송해야 한다.

가정 인형극장 시상식은 6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предложи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домашних кукольных теат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и принимать заявки на пятый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домашних кукольных театров кукол. В 2023 году он посвящен русским народным сказка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Участвовать могут как семьи, у которых уже есть домашний кукольный театр, так и те, кто мечтает создать такой. В постановке должны участвовать взрослые и дет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 до 31 марта 2023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атре кукол. Затем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ведут серию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тренингов онлайн, на которых научат актерскому мастерству и технологии создания матчасти спектакля. В результате им нужно будет записать видео спектакля и направить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театра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йдет 1 июня.

## 대형 팬케이크, 마슬레니차에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굽는다

2월 26일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가가린 문화휴식공원에서 마슬레니차 축제가 12시에 진행된다. 이 축제를 장식할 주요 행사는 대형 블린(팬케이크) 굽기라고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 행정부가 전했다. 축제의 주요 상징은 11시-14시 30분까지 сахалин 생산품들의 박람회가 열리는 톨러스케이트장에서 블린을 굽는 것이다.

15시에는 웨르흐네예 호수 구역에서 축제의 절정인 마슬레니차 짚인형 태우기 행사가 펼쳐진다.

## Гигантский блин испекут на Маслениц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редстоящее воскресенье, 26 февраля,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 Гагарина пройдут масленичные гуляния. Праздник начнется в 12:00.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его украшений станет блин-гигант,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лавный символ праздника будут выпекать на роллерной площадке, где с 11:00 до 14:30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ярмарка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Кульминацией праздника станет сожжение чучела Масленицы в 15:00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зера Верхнего.

## 2023년 сахалин의 중학생 2천 명 이상이 사회적 견학을 위해 떠난다

2023년에 '관광과 호텔 산업' 국가기획에 따라 сахалин의 5학년-9학년 학생 2천500여 명이 여행을 떠난다. 2022년에 비해 참가 학생들의 수가 2배나 늘었다고 주 관광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주는 2년째 이 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극동 지역에서 сахалин주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이 프로그램에 1,300명의 학생들이 사회적 견학을 떠났다.

"우리는 전과 같이 견학 등록 시 어린 견학생들의 편리와 인지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반드시 오락적 요소도 가미할 계획이다."라고 сахалин주 관광부 아르쎬 라자레브 장관이 덧붙였다.

## Более 2 тыс. учеников средних школ Сахалина отправятся на социа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в 2023 году

В 2023 году 2,5 тыс. учеников 5-9 классов отправятся в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Туризм и индустрия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2 годом число детей вырастет почти вдво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торой год участвует в проект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егион был первы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то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программе — тогда на социа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отправились 1,3 тыс. школьников.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экскурсий традиционно уделяем внимание комфорту юных туристов, познаватель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Обязательно предусмотрим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часть»,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среда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